

6. 하회마을의 상장례

▣ 우리 조상들은 왜 3년 상을 지냈을까?

안동민속박물관 상례 전시코너에는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생각과 부모님을 여읜 자식들의 슬픔, 주검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절차와 의례에 대해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안동민속박물관의 상례 전시코너, 여막을 치고 혼백을 모신 상청에 굴건제복을 갖춘 상주가 집자리 위에 상장을 짊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토록 깊이 있고 작은 것 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여 높은 정신문화를 보여주고 있어 놀라워하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해 한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수없이 배웠고 나아가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실제로 무엇이 우수한지를 물었을 때 선뜻 답을 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지 못했으며 알 수 없었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을 보고 해설을 들으면서 그 실체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 한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우리 문화 이야기 중에서 죽음과 관련된 문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생각과 그 깊이를 가늠해 보자. 먼저 우리는 상을 당하게 되면 삼년동안 지극할 정도로 예를 다한다. 바로 이 점에서부터 의문을 가져보자. 우리는 살면서 너무 평범하고 가까이 접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예부터 상을 당하면 누구나 삼년동안 상례를 치렀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삼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한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왜 삼년상을 지내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또한 한결같다. 윗대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기에 나 또한 그렇게 따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과 공기이지만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늘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아무런 까닭과 이유 없이 삼년상을 치르지는 않았다. 여기에도 깊이 있는 우리 민족의 생각이 담겨 있다. ‘사자소학’의 첫 장에 보면

父生我身(부생아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母鞠我身(모국아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腹以懷我(복이회아) 배로써 나를 품어 주시고

乳以哺我(유이포아) 젖으로써 나를 먹여 주셨다.
 以衣溫我(이의온아) 옷으로써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以食飽我(이식포아) 밥으로써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
 恩高如天(은고여천) 은혜는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德厚似地(덕후사지) 덕은 두텁기가 땅과 같으시니
 爲人子者(위인자자) 사람의 자식 된 자가
 曷不爲孝(갈불위효)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나를 낳으심은 아버지요, 나를 기르신 것은 어머니이다. 배로써 나를 품어 주시고 젖으로 나를 먹여 주셨다.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덕은 땅과 같이 두터우니 자식 된 자가 어찌 부모의 사랑을 잊고 효도하지 않겠는가?”라 가르치듯이 부모의 다함없는 사랑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 적어도 3년[만 2년]은 키워야 제 스스로 밥도 먹고 대소변도 가릴 수 있어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정성을 다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키운 것처럼 자식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3년 정성에 대한 보은報恩의 뜻으로 삼년상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고, 태어나서 첫 돌이 지나야만 저 홀로 일어서서 어머니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아 삼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며 기르셨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리는 뜻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삼년상’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상을 당한 것을 알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해 전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택을 지키시던 종손어른께서 돌아가시자 사랑채에 여막을 쳤다. 이를 본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박물관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여막廬幕”이라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여막이라 할 때의 여廬 자는 집 엄广 밑에 밥그릇 로廬로 이루어진 형성形聲 자이다. 广(엄) 자는 언덕 한 厂 위에 있는 지붕[]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집’을 뜻하고, 廬(로)는 ‘빙 두르다’는 뜻을 담아 돌레를 빙 두르기만 했을 뿐인 집으로 초막의 뜻을 지니고 있다. 여막이란 부모를 여읜 자식들이 슬픔을 가눌 길 없어서 그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달래고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묘 옆에 작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처하던 곳을 말한다. 이처럼 상주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일을 여묘廬墓 또는 시묘待墓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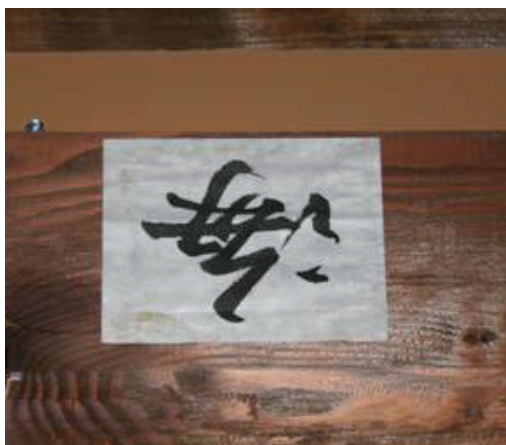
의성김씨 학봉 종가의 여막



문충고가(文忠古家, 문충은 학봉 김성일 선생의 시호) 현판 밑에 길게 붙은 파록(爬錄)은 무자년(2008년) 정월 초 3일 의성 김공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서애 류성룡 선생의 14대 종손인 하회 충효당의 류영하씨를 총책임자인 도집례로 하여 예에 소홀함이 없게 역할분담과 임무를 맡긴 분정기록이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여묘하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생각할 만큼 높게 받아들였느냐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안막동과 풍산읍 만운리의 여막들, 풍산읍 상리의 시묘골 등의 지명은 여묘살이와 관련이 있다. 안막동은 순흥 안씨 성을 가진 효자가 여막을 짓고 묘를 지켰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여막들은 만운저수지 위에 있는 평지마을의 서쪽에 있는 들로 송씨(宋氏) 성을 가진 효자가 이곳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시묘를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풍산읍 상리의 시묘골은 체화정 조금 못 미쳐서 있는데 조선 명종 때의 효자 김시좌가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였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이처럼 여막은 본래 상주가 무덤 근처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무덤을 지키기 위해 거처



여막을 칠 수 없었던 집에서는 바다 해(海) 자를 뒤집어서 문 위에 붙여 놓음으로써 상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하는 곳이였다. 여막을 지어 여묘하는 풍속은 중국의 장제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와 「고려사」에 여막을 짓고 여묘살이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고려 말에 와서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중시하는 사대부가에 널리 전파되어 여묘하는 풍속이 효행의 상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여묘살이하는 풍습은 효행의 근본으로 인식되면서 묘 근처에 오두막을 지어 무덤을 지키던 것을 집안으로까지 끌어들여 상청을 꾸미고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위하여 차려놓은 영좌를 지키기 위해 사랑채에 여막을 치는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묘 근처에 지었던 여막은 현전하는 것이 없고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아서 그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없다. 다만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사랑채에 치는 여막의 형태만 전한다.

여막은 무덤을 지키거나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모신 영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외에

도 이를 통해서 집안에 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한다. 3년 상을 지켜가는 동안 집안을 찾는 손님들에게 상중임을 알려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함으로써 자칫 범하게 되는 결례를 미리 방지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여막을 칠 수 없었던 사가에서는 집안을 찾는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바다 해(海) 자를 거꾸로 붙여서 상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는 바다가 뒤집어진 것과 같은 큰 화를 입었다는 의미로 인식되어 곧 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고 언행을 조심하게 했다.

▣ 돌아가신 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상장(喪杖)



머리에는 굴건과 수질(머리띠)을 쓰고 허리에는 요질(허리띠)을 했다. 거친 베로 지은 상복에는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눈물받이를 달았으며 발 앞에는 짚으로 만든 고침을 놓았다. 상장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다.

상을 당한 집을 조문하기 위해 찾아가서 돌아가신 분이 상주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묻는 것은 여간 실례가 아닐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여윈 아픔과 슬픔이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을 만큼 넓고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상주에게 그 같은 망극함을 물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사소한 것 까지도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한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상주가 짚고 있는 지팡이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 상주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상장이라 하는데 상주는 왜 지팡이를 짚고 이 지팡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죄인이라 생각했다. 살아생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며 하물며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죄인이기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부모를 떠나보내는 예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는 거친 베로 짠 누더기와 같은 상복喪服을 입었다. 상복에는 눈물받이를 달아 슬픔에 복받쳐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내기도 하고 거칠게 짠 짚자리 위에서 조문객을 맞이한다. 곱게 짠 초석자리를 두고 굳이 거친 짚으로 엮기설기 엮은 짚자리를 깔고 조문객을 맞이한다. 이 또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자식은 죄인이기에 좋은 자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부모를 여윈 자식들은 기름지고 만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로지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예를 다한다. 그러다가 보니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 자칫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다함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게 했다. 지팡이의 길이도 상주가 짚었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숙여질 정도의 길이이다. 자식들은 죄인이기에 고개를 뺏뺏하게 들 수 없도록 지팡이의 길이까지도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지팡이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나무가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왜 상주들은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짚었을까? 여기에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이 아버지의 그것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아버지를 가리킨 것이고, 대나무의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마디마디 애통하기 그지없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나무가 사시사철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함 또한 겨울과 봄, 여름을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본뜬 것이다.

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라도 자식들에게 슬픔은 매한가지 인데 대나무가 아닌 오동나무 지팡이로 바꾸어 짚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대나무가 아닌 오동나무 지팡이를 사용했다. 이 때에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땅을 표현하기 위해 지팡이 밑 부분을 네모나게 깎아서 사용 했다. 그렇다면 왜 오동나무였을까? 다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도 될 텐데 오동나무를 쓴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오동나무의 ‘동桐’ 자는 한자음으로 같을 동_동자와 합치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자식들에게 슬픔은 매 한가지라는 의미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오동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버드나무로도 만들어 쓴다. 버드나무는 물가 아무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의 강인한 모성애를 닮아 있고 또 버드나무를 뜻하는 류_류 자는 한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같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이처럼 상주가 짚고 있는 지팡이만 보아도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단순한 지팡이 하나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근본사상인 인효사상과 성경_{誠敬}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담았다.